



캠코, 저소득가정 '희망 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제적 여건으로 가족여행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가정 등 총 50가족, 150명을 대상으로 '희망 Replay(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캠코는 희망 리플레이(Replay) 제주도 가족여행 첫날인 17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희망 Replay 제주도 가족여행 기념식'을 개최한 후 제주도 여행에 참가한 가족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효성, 고려대에 산학협력강좌 개설 효성은 올해 2학기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부와 석·박사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강좌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효성은 2011년부터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 우수대학에서 미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강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 철학에 따라 시행 중이다. R&D 투자 확대와 인재 확보 등이다. /효성



대흥기획, 제36회 DCA 대학생광고대상 시상식 개최 대흥기획은 지난 17일 예비광고인 아이디어 공모전 제36회 'DCA 대학생광고대상(Daehong Creative Award)'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에는 ▲롯데제과 뽀빠로 '함께 이어가는 길 뽀빠로드' (한양대학교 한민회·장소영, 상명대학교 전소연)와 ▲롯데주류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약속' (경희대학교 육수민)이 뽑혔다. /대흥기획



롯데리아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야구 리그' 성료 롯데리아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야구리그' 대회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결선 리그 결과 송중초등학교, 광희중학교가 우승했고, 우천으로 연기돼 17일 서울성남고등학교에서 열린 고등부 결승에서는 경인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롯데GRS

제주삼다수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사회적 책임 경영활동 강화

제주삼다수가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적 책임 경영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시민 그룹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UNGC 가입

으로 앞으로 인권과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 및 기업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UNGC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등 공사의 다양한 활동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게 된다. 도민의 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일찌감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쌓아가고 있다. /박인용 기자



윤 위 중 역
잠시 쉼표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몰아붙인다.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정을 봐주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간지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양보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려나 관용이 없어졌다. 내가 아니면 남이라는 생각,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주장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런 현상이 특히 더 심해졌다.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도 가차 없이 달려든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다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었다. 상대방의 흠집을 찾기 위해 체면이고 뭐고 없다. '유튜브 언론인'이라는 생전 처음 듣는 희한한 변명도 어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있어야 할 국회를 비워두고 길거리에서 삭발을 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정치인들도 늘고 있다.

기업들도 언제부터가 '동업자 정신'

양보 없는 사회

이 사라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기술집털 소송전이 '적전분열'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도무지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한국수출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나올지 모른 상황인 데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턱 밑까지 올라왔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두 기업 간의 소송전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TV 시장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8K를 두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라는 비판과, 상대방 제품이 오히려 흠결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기업만이 아니다. 이들은 전 세계 TV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의 소니, 도시바, 히다치 등을 꺾고 세계 1위의 반열에 올라선 글로벌 기업들이다. 이들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면 그 상대는 전 세계 소비자들일 것이다. 단지 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한 단어였지만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의 주장이나 주관이 그만큼 뚜렷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들 똑똑하고 잘난 건 좋지만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 그저 아는 게 많다는 것과, 그 많은 지식을 슬기롭게 사용한다는 건 상대방의 배려,

용서, 포용 등 도덕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정치나 기업이나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른'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고만고만한 두 싸움에 누군가 나서서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정치 원로, 재계 원로가 지금 이 시대에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정계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있을까. 대권 주자가 아니더라도, 여와야의 싸움을 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덕망 있는 인사가 과연 있나.

재계도 마찬가지다. 과거 이견회 회장, 구본무 회장 등 정부나 정치권에 쓴 소리를 하면서 후배 기업인들의 존경을 받는 재계 원로가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 게다가 정치권에서 대기업을 마치 국가에 해를 끼치는 나쁜 집단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재계 원로들도 요즘은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어른께 어른 대접을 하지 않고, 본인이 잘났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절대 상대방에 대해 용서나 양보를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보 없는 사회, 어른 없는 사회가 됐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말련 랜드마크와 노하우 공유 맞손

페트로사인스와 업무협약 체결

롯데월드는 지난 17일 페트로나스트윈타워를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와 양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 및 전망대 운영 노하우 공유 ▲상호 마케팅 활동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페트로나스트윈타워는 높이 452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으로 360m 높이의 전망대와 170m 높이의 스카이라이프 등의 관람시설을 갖



지난 17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페도라 줄키플리 페트로나스트윈타워 대표(왼쪽부터), 다록 하심 와히르 KLCC힐딩스 그룹 CEO,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월드

추고 있다.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인사

◆**방위사업청** ◇본부장 전보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강은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손현찬 ◇국·부장 전보 △방위사업정책국장 정재준 △국방기술보호국장 김상모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서형진 △화학사업부장 임영일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이정용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원종대 △유도무기사업부장 송창준 △무인사업부장 김중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과장급 전보 △방위사업분석과장 강정훈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원호준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 이찬규 △기반전력사업규격목록팀장 황양운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기팀장 함수영 △기동계약팀장 이진호 △전투차량사업팀장 박정은 △전투함계약팀장 한상

설 △태장비사업팀장 이영섭 △헬기계약팀장 김선국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천재운 △미래전력사업원기팀장 황인태 △지휘통제통신계약팀장 권주택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최진용 △감시전자계약팀장 박용도 △무인계약팀장 조광섭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처장급 전보 △해외사업본부장 손병두 △영남본부장 이인희 △충청본부장 성영석 △비서실장 우현구 △설계실장 이종윤 △품질관리처장 강홍목 △인사복지처장 이현철 △전철처장 양인동 △궤도처장 이용희 △기술교육연구원 기술연구처장 장형식 △영남본부 재산지원처장 임연민 △충청본부 총청권사업단장 송혜춘
◆**동양생명** ◇전무 승진 △피터진(CF O·경영전략부문장)

부음

▲ 강운순씨 별세, 정재호(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정채성·정현철(연세준치과 원장)씨 모친상, 최지연(농협투자증권 국제영업부 근무)·신나임씨 시모상, 조성은(삼성전자 부장)씨 장모상 = 18일 오전 6시1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우성공원 묘원. 02-3410-6901
▲ 나창주씨 별세, 나정선·나인집(전 두산중공업 과장)·나정미·나명재(여수강남요양병원 원장)씨 부친상, 박홍기(서울신문 편집이사)씨 장인상 = 17일 오후 11시, 광주광역시 광주수원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20일 오전. 062-959-4444